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5 주차 (3:22~4:8)

(2015년 2월 22일 - 2015년 2월 28일)

(제3권 5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3 권 -5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2 월 22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4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주일)

오늘의 말씀 (요 3:14~21)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14절)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높이 들어 올린 것같이
(Καὶ καθὼς Μωϋσῆς ὑψωσεν τὸν ὄφιν ἐν τῇ ἐρήμῳ.)
따라서 인자가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οὕτως ὑψωθῆναι δεῖ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 (15절)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ἵνα πᾶς ὁ πιστεύων ἐν αὐτῷ ἔχη ζωὴν αἰώνιον.)
- (16절) [따라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οὕτως γὰρ ἠγάπησεν ὁ θεὸς τὸν κόσμον.)
그래서 홀로 존재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ὥστε τὸν υἱὸν τὸν μονογενῆ ἔδωκεν.)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ἵνα πᾶς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αὐτὸν μὴ ἀπόληται ἀλλ' ἔχη ζωὴν αἰώνιον.)
-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목적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οὐ γὰρ ἀπέστειλεν ὁ θεὸς τὸν υἱὸν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ἵνα κρίνη τὸν κόσμον.)
반대로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이 구원되도록 하실 목적으로 [보내셨습니다]
(ἀλλ' ἵνα σωθῆ ὁ κόσμος δι' αὐτοῦ.)
- (18절) 그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αὐτὸν οὐ κρίνεται.)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되었습니다 (ὁ δὲ μὴ πιστεύων ἤδη κέκριται.)
왜냐하면,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μὴ πεπίστευκεν εἰς τὸ ὄνομα τοῦ μονογενοῦς υἱοῦ τοῦ θεοῦ.)
- (19절) 그리고 이것이 심판입니다 (αὕτη δέ ἐστιν ἡ κρίσις)
빛이 세상으로 들어 왔습니다 (ὅτι τὸ φῶς ἐλήλυθεν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καὶ ἠγάπησαν οἱ ἄνθρωποι μᾶλλον τὸ σκότος ἢ τὸ φῶς·)

왜냐하면 그들의 일이 악이었습니다 (ἦν γὰρ αἰτῶν πονηρὰ τὰ ἔργα.)

(20절) 왜냐하면 무가치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빛을 싫어 합니다

(πάντες γὰρ ὁ φαῦλα πρέσσωσαν μισεῖ τὸ φῶς)

그리고 빛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다 (καὶ οὐκ ἔρχεται πρὸς τὸ φῶς·)

그들의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ἵνα μὴ ἐλεγχθῇ τὰ ἔργα αὐτοῦ·)

(21절)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빛을 향해 나옵니다 (ὁ δὲ ποιῶν τὴν ἀλήθειαν ἔρχεται πρὸς τὸ φῶς·)

그 결과 하나님에 의해 수행된 그의 일이 밝혀지게 됩니다

(ἵνα φανερωθῇ αὐτοῦ τὰ ἔργα ὅτι ἐν θεῷ ἔστιν εἰργασμένα.)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이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낯뱀 사건에 이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읽으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존재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헬라이어 직역)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위로부터 나는 것 → 성령으로 나는 것 → 인자가 낯뱀처럼 높이 들어 올려지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신 내용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세 말씀이 모두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오늘 이 말씀은 그분이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홀로 존재하셨던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나신 목적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이 멸망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땅에 보내셔서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게 해야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죄없음을 선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신비한 형상을 보여 주거나, 하늘에서 어떤 손가락으로 글을 쓴다거나, 지구를 뒤흔들 만큼의 천둥같은 소리로 회개를 외치고 용서를 선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찮은 인간이 지은 이 정도 죄쯤은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시면 마음이 넓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바라는 그런 방식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 자신이 직접 벌을 받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당시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

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인간들에게 자신들이 지은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들은 그 방법으로 열심히 죄를 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단에 희생양을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주셨던 방법 대신 왜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는 방법을 통해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을까요?

중세의 신학자 안셀름 (Anselm of Canterbury, 1033~1109)은 그의 저서 [왜 하나님이자 인간이어야 했는가?] [Cur Deus Homo (Why the God-Man?)]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를 삼단 논법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대전제: 인간은 모두 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 사실에 진노하셨다.
- (2) 소전제: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죄를 용서 받으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었다.
- (3) 결론: 따라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와서 그들의 죄를 갚는 방법 외에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그 빛을 대신 갚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빛이 하나도 없는 동시에 그 빛을 갚을 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들 모두가 빛진 상태라 어떤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속성 중 하나가 결여되거나 또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부족하면 그 순간 온전한 구원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람마다 사랑의 정의가 다 다르지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 친구간의 사랑, 이성간의 사랑 등으로 나누어 각기 다르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분하여 설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희생되는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한 것이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간증문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믿음과 심판 (월요일)

오늘의 말씀 (요 3:14~21)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14절)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높이 들어 올린 것같이
(Καὶ καθὼς Μωϋσῆς ὑψωσεν τὸν ὄφιν ἐν τῇ ἐρήμῳ.)
따라서 인자가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οὕτως ὑψωθῆναι δεῖ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 (15절)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ἵνα πᾶς ὁ πιστεύων ἐν αὐτῷ ἔχῃ ζωὴν αἰώνιον.)
- (16절) [따라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οὕτως γὰρ ἠγάπησεν ὁ θεὸς τὸν κόσμον.)
그래서 홀로 존재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ὥστε τὸν υἱὸν τὸν μονογενῆ ἔδωκεν.)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ἵνα πᾶς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αὐτὸν μὴ ἀπόληται ἀλλ' ἔχῃ ζωὴν αἰώνιον.)
-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목적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οὐ γὰρ ἀπέστειλεν ὁ θεὸς τὸν υἱὸν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ἵνα κρίνῃ τὸν κόσμον.)
반대로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이 구원되도록 하실 목적으로 [보내셨습니다]
(ἀλλ' ἵνα σωθῇ ὁ κόσμος δι' αὐτοῦ.)
- (18절) 그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αὐτὸν οὐ κρίνεται.)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되었습니다 (ὁ δὲ μὴ πιστεύων ἤδη κέκριται.)
왜냐하면,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μὴ πεπίστευκεν εἰς τὸ ὄνομα τοῦ μονογενοῦς υἱοῦ τοῦ θεοῦ.)
- (19절) 그리고 이것이 심판입니다 (αὕτη δέ ἐστιν ἡ κρίσις)
빛이 세상으로 들어 왔습니다 (ὅτι τὸ φῶς ἐλήλυθεν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καὶ ἠγάπησαν οἱ ἄνθρωποι μᾶλλον τὸ σκότος ἢ τὸ φῶς·)

왜냐하면 그들의 일이 악이었습니다 (ἦν γὰρ αὐτῶν πονηρὰ τὰ ἔργα.)

(20절) 왜냐하면 무가치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빛을 싫어 합니다

(πᾶς γὰρ ὁ φαῦλα πρίσσει τὸ φῶς)

그리고 빛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다 (καὶ οὐκ ἔρχεται πρὸς τὸ φῶς·)

그들의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ἵνα μὴ ἐλεγχθῇ τὰ ἔργα αὐτοῦ·)

(21절)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빛을 향해 나옵니다 (ὁ δὲ ποιῶν τὴν ἀλήθειαν ἔρχεται πρὸς τὸ φῶς·)

그 결과 하나님에 의해 수행된 그의 일이 밝혀지게 됩니다

(ἵνα φανερωθῇ αὐτοῦ τὰ ἔργα ὅτι ἐν θεῷ ἔστιν εἰργασμένα.)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7-19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구원에서 심판의 문제로 옮겨 갑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하신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심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심판에 이르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지요).

17 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분명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생깁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는 구원에 있지만 불가피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심판의 의미를 좀더 알기 위해 성경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 절을 읽으십시오.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18 절 말씀에 따르면 심판의 잣대는 ‘믿음’입니다. ‘믿는자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자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 현재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은 이미 심판된 자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이미 심판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정해져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니까요. 결국 이 말은 예정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당신은 믿는 자들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믿는 자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택한 것이라 생각합니까?

만약 믿는 자들이 이미 예정되었고 그 사람들만을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구원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만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였다면 구원의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지지합니까? 그 이유를 적어 보십시오.

18 절 말씀에 따르면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구원의 결정권이 인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 아들이 아무리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도 인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구원의 결정권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매우 불편하게 여깁니다. 인간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가 훼손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들에게는 이미 존엄성이니 가치니 하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수백 번을 외친다고 해서 내 안에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 11:1~2)

이 말씀의 의미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먼저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¹ Ἔστιν δὲ πίστις ἐπιζομένην ὑπόστασις, (믿음은 되어질 것들의 본체이다)

πραγμάτων ἔλεγχος οὐ βλεπομένων. (보이지 않는 실체의 증거이다)

² ἐν ταύτῃ γὰρ ἐμαρτυρήθησαν οἱ πρεσβύτεροι. (왜냐하면, 이 것[믿음] 안에서 조상들이 증거되었다.)

믿음에 대한 조작적 정의 (operational definition): “**믿음**은 장차 현실화 될 것이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본체 (hypostasis)**이고 **증거 (proof)**”다.

이 정의에 따르면 첫째, 믿음은 **본질**입니다. 실체 (substance) 적인 것이지요. 인간의 추상적 신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명사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신념에 기반을 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나 이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증거**입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의미로 쓰인 ἔλεγχος (elegchos)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것이 진실임을 밝히기 위해 실증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증거물이라는 의미보다는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하는 구체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셋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본체(hypostasis)와 증거는 장차 어느 순간 반드시 현실화될 것이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비록 지금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지도, 소망한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실재하는 믿음이 장차 반드시 현실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믿음은 어떤 실체이며,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증거가 제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에 될 것들의 집합체이나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은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 어떤 실제적인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의해 믿음 안으로 들어가 믿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엡2:8 참조). 당신의 신념 체계를 믿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식이나 신념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믿음입니다. 당신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악과 어두움 (화요일)

오늘의 말씀 (요 3:14~21)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14절)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높이 들어 올린 것같이
(Καὶ καθὼς Μωϋσῆς ὑψωσεν τὸν ὄφιν ἐν τῇ ἐρήμῳ.)
따라서 인자가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οὕτως ὑψωθῆναι δεῖ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 (15절)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ἵνα πᾶς ὁ πιστεύων ἐν αὐτῷ ἔχη ζωὴν αἰώνιον.)
- (16절) [따라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οὕτως γὰρ ἠγάπησεν ὁ θεὸς τὸν κόσμον.)
그래서 홀로 존재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ὥστε τὸν υἱὸν τὸν μονογενῆ ἔδωκεν.)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ἵνα πᾶς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αὐτὸν μὴ ἀπόληται ἀλλ' ἔχη ζωὴν αἰώνιον.)
-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목적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οὐ γὰρ ἀπέστειλεν ὁ θεὸς τὸν υἱὸν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ἵνα κρίνη τὸν κόσμον.)
반대로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이 구원되도록 하실 목적으로 [보내셨습니다]
(ἀλλ' ἵνα σωθῆ ὁ κόσμος δι' αὐτοῦ.)
- (18절) 그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αὐτὸν οὐ κρίνεται.)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되었습니다 (ὁ δὲ μὴ πιστεύων ἤδη κέκριται.)
왜냐하면,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μὴ πεπίστευκεν εἰς τὸ ὄνομα τοῦ μονογενοῦς υἱοῦ τοῦ θεοῦ.)
- (19절) 그리고 이것이 심판입니다 (αὕτη δέ ἐστιν ἡ κρίσις)
빛이 세상으로 들어 왔습니다 (ὅτι τὸ φῶς ἐλήλυθεν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καὶ ἠγάπησαν οἱ ἄνθρωποι μᾶλλον τὸ σκότος ἢ τὸ φῶς·)

왜냐하면 그들의 일이 악이었습니다 (ἦν γὰρ αἰτῶν πονηρὰ τὰ ἔργα.)

(20절) 왜냐하면 무가치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빛을 싫어 합니다

(πᾶς γὰρ ὁ φαῦλα πρίσσει τὸ φῶς)

그리고 빛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다 (καὶ οὐκ ἔρχεται πρὸς τὸ φῶς·)

그들의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ἵνα μὴ ἐλεγχθῇ τὰ ἔργα αὐτοῦ·)

(21절)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빛을 향해 나아옵니다 (ὁ δὲ ποιῶν τὴν ἀλήθειαν ἔρχεται πρὸς τὸ φῶς·)

그 결과 하나님에 의해 수행된 그의 일이 밝혀지게 됩니다

(ἵνα φανερωθῇ αὐτοῦ τὰ ἔργα ὅτι ἐν θεῷ ἔστιν εἰργασμένα.)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참고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해 설명하신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의미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19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심판에 대한 정의를 내리십니다. 19절은 “이것이 심판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으로 정의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빛이 세상으로 들어 왔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즉, 빛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심판이지요. 만약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심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을 사랑할까요? 그들이 정말로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에 거하는 것이 좋아서 그럴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빛을 사랑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사랑하는 그 빛이 진짜 빛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앞서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그가 속한 그룹이 어둠에 속해 있고 심판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충실히 율법을 지켰고, 누구보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누구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이요 악에 속한 자라면 이 세상에서 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라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둠에 속한 마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⁹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¹⁰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¹¹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¹²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¹³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¹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하셨느니라 (엡 5:8-14)

이 말씀에 따르면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것은 인간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속하였으며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다시 어둠에 속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실수할 수도 있고 고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으며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빛’이라는 정체성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그리스도 안에서 빛은 영원히 빛입니다.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빛이 되었다가 어둠이 되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우리가 악과 어둠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과 어둠은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나쁘다고 규정해 놓은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예를 들어, 마약을 하고, 창녀노릇을 하고, 술주정뱅이가 되고, 도박을 하는 등의 비도덕적 행위를 일삼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어둠은 인간 자신의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세계관에 갇혀 그 잣대로 남의 행위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끝까지 의를 이루어가려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같은 세계관이 바로 어둠이고 악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기 자신이나 남을 향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간단하게 본인의 생각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과 21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빛으로 나오는 사람과 빛을 싫어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무가치한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보십시오)

또한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요한복음 4장이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존재들이고 가치 있는 일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있는 일의 정의는 무엇이며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한가요?

21절 후반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내리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의해 수행된 그의 일이 밝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수행된 그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밝혀진다’는 말은 드러내어 계시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행해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3장

16절에 기록된 그 일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는 죄인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니까요. 빛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의해 수행된 그의 일이 밝혀진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빛으로 나온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직 빛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요 3:22~36)

22. 이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23.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24.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25.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6.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7.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29.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30.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31.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33.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34.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원문번역하기

(22절) 그 일 이후에 (Μετὰ ταῦτα)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ἦλθεν ὁ Ἰησοῦς καὶ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εἰς τὴν Ἰουδαίαν γῆν)

그리고 거기서 그들과 머무르셨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καὶ ἐκεῖ διέτριβεν μετ' αὐτῶν καὶ ἐβάπτισεν.)

(23절) 요한도 살렘에서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Ἦν δὲ καὶ ὁ Ἰωάννης βαπτίζων ἐν Αἰνὼν ἐγγὺς τοῦ Σαλείμ)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습니다 (ὅτι ὕδατα πολλὰ ἦν ἐκεῖ)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왔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καὶ παρεγίνοντο καὶ ἐβαπτίζοντο)

(24절) 왜냐하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οὐπω γὰρ ἦν βεβλημένος εἰς τὴν φυλακὴν ὁ Ἰωάννης)

(25절)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습니다

(Ἐγένετο οὖν ζήτησις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Ἰωάννου μετὰ Ἰουδαίου περὶ καθαρισμοῦ.)

- (26절) 그리고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καὶ ἦλθον πρὸς τὸν Ἰωάννην καὶ εἶπον αὐτῷ·)
 랍비여 요단강 건너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ῥαββί, ὃς ἦν μετὰ σοῦ πέραν τοῦ Ἰορδάνου,)
 당신이 증거했던 그분이 (ὃ σὺ μαρτυροῦσθα,)
 보십시오 (ἴδε)
 그가 세례를 주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갑니다 (οὗτος βαπτίζει καὶ πάντες ἔρχονται πρὸς αὐτόν.)
-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ωάννης καὶ εἶπεν·)
 단 한 사람도 받을 수 없느니라 (οὐ δύναται ἄνθρωπος λαμβάνειν οὐδὲ ἐν)
 만약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εἰ μὴ ἢ δεδομένον αὐτῷ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 (28절) 당신들이 스스로 나에게 증거하였습니다 (αὐτοὶ ὑμεῖς μοι μαρτυρεῖτε)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에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ὅτι εἶπον [ὅτι] οὐκ εἰμὶ ἐγὼ ὁ Χριστός, ἀλλ' ὅτι ἀπεσταλμένος εἰμὶ ἔμπροσθεν ἐκείνου.)
- (29절)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입니다 (ὁ ἔχων τὴν νύμφην νυμφίος ἐστίν·)
 신랑의 친구 (신랑의 사랑하는 자), 즉 서서 그로부터 기쁨으로 듣는 자는
 (ὁ δὲ φίλος τοῦ νυμφίου ὁ ἐστηκὼς καὶ ἀκούων αὐτοῦ χαρᾷ)
 신랑의 소리로 인해 기뻐 합니다 (χαίρει διὰ τὴν φωνὴν τοῦ νυμφίου.)
 따라서 이것이나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αὕτη οὖν ἡ χαρὰ ἢ ἐμὴ πεπλήρωται)
-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퇴하여야 합니다 (ἐκείνον δεῖ αὐξάνειν, ἐμὲ δὲ ἔλαττουσθαι.)
-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Ὁ ἄνωθεν ἐρχόμενος ἐπάνω πάντων ἐστίν·)
 땅으로부터 온 존재들은 땅에 속하였습니다 (ὁ ὢν ἐκ τῆς γῆς ἐκ τῆς γῆς ἐστίν)
 그리고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καὶ ἐκ τῆς γῆς λαλεῖ.)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ὁ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ἐρχόμενος [ἐπάνω πάντων ἐστίν]·)
- (32절) 그는 본 것과 들은 것을 증거합니다 (ὁ ἐώρακεν καὶ ἤκουσεν τοῦτο μαρτυρεῖ,)
 그리고 누구도 그의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καὶ τὴν μαρτυρίαν αὐτοῦ οὐδεὶς λαμβάνει.)
-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심을 인쳤습니다
 (ὁ λαβὼν αὐτοῦ τὴν μαρτυρίαν ἐσφράγησεν ὅτι ὁ θεὸς ἀληθὴς ἐστίν.)
- (34절) 왜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를 보내셨습니다
 (ὄν γὰρ ἀπέστειλεν ὁ θεὸς τὰ ῥήματα τοῦ θεοῦ λαλεῖ)
 왜냐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οὐ γὰρ ἐκ μέτρου δίδουσιν τὸ πνεῦμα.)
- (35절)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ὁ πατὴρ ἀγαπᾷ τὸν υἱόν)
 그리고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καὶ πάντα δέδωκεν ἐν τῇ χειρὶ αὐτοῦ.)
- (36절)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τὸν υἱὸν ἔχει ζωὴν αἰώνιον·)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ὁ δὲ ἀπειθῶν τῷ υἱῷ οὐκ ὄψεται ζωὴν,)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ἀλλ' ἡ ὀργὴ τοῦ θεοῦ μένει ἐπ' αὐτό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복음서의 저자는 다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세례 요한은 여전히 세례를 주고 있었 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 동력을 점점 상실하여 과거에 했던 것만큼 왕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는 예수 님의 공동체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경쟁하여 그에게로 오는 사람

들을 가로챘기 때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 스스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자신은 그의 샌달끈을 풀 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공공연하게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은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거대한 대하 드라마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후 미련없이 퇴장합니다.

22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들어가셨고,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며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4 장 2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요 4:2).

예수님은 그 당시 누구에게도 물로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을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오해를 사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은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상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을 통해 추정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그들은 사람의 정결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던 대로 계속 세례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2-25 절을 읽으십시오. 25 절에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논쟁이 있었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물세례를 정결의식으로 생각했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이해하는 두 개의 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로움과 정결함입니다. 얼마나 의로우냐? 라는 문제와 얼마나 깨끗하냐? 라는 문제가 유대인들의 세계관과 일상생활 전체를 지배한 것이지요. 의로움이 ‘행위’를 평가하는 잣대라면 정결함은 ‘상태’를 평가하는 잣대였습니다. 예를 들어 문둥병자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상태가 더러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행위와 상관없이 한 달에 한번씩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시장에 갔다오면 유대인들은 몸 전체를 씻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상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와는 달리 구체적인 행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다든지 율법에 정한 계율을 어기게 되면 불의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불경건에 대하여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롬 1:18 참조).

여기서 정결 의식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는 말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정결해 질 수 있는지에 관한 논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이 도시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자신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정결 의식으로 이해했으니까요. 따라서 정결 의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말은 세례 요한의 세례로 사람이 정결해 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초점은 그것으로 정결해지나 아니냐에 있지 않습니다. 26 절을 읽으십시오. 그 논쟁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있으며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에게 가고 있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요단강 건너에서 당신(세례 요한)과 함께 계셨

고 당신이 증거했던 그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7-29 절을 읽으시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역할이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만약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단 한 사람도 받을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로 가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30 절을 읽으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퇴하여야 합니다.”라는 이 선언은 단순히 세례 요한 자신의 개인적인 사역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림자의 시대가 가고 실체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매이는 것은 아직도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실체를 만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몰라서 실제로는 자신이 율법주의자이면서도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전부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하늘로부터 온 그분은 하늘의 것을 증거합니다(목요일)

오늘의 말씀 (요 3:22~36)

22. 이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23.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24.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25.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6.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7.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 나의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29.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30.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31.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33.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34.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니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원문번역하기

- (22절) 그 일 이후에 (Μετὰ ταῦτα)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ἦλθεν ὁ Ἰησοῦς καὶ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εἰς τὴν Ἰουδαίαν γῆν)
그리고 거기서 그들과 머무르셨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καὶ ἐκεῖ διέτριβεν μετ' αὐτῶν καὶ ἐβάπτισεν.)
- (23절) 요한도 살렘에서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Ἦν δὲ καὶ ὁ Ἰωάννης βαπτίζων ἐν Αἰνὼν ἐγγὺς τοῦ Σαλείμ)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습니까 (ὅτι ὕδατα πολλὰ ἦν ἐκεῖ)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왔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καὶ παρεγίνοντο καὶ ἐβαπτίζοντο)
- (24절) 왜냐하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οὐπω γὰρ ἦν βεβλημένος εἰς τὴν φυλακὴν ὁ Ἰωάννης)
- (25절)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습니다
(Ἐγένετο οὖν ζήτησις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Ἰωάννου μετὰ Ἰουδαίου περὶ καθαρισμοῦ.)

- (26절) 그리고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καὶ ἦλθον πρὸς τὸν Ἰωάννην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랍비여 요단강 건너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ῥαββί, ὃς ἦν μετὰ σοῦ πέραν τοῦ Ἰορδάνου,)
 당신이 증거했던 그분이 (ὃ σὺ μαρτυροῦσθα,)
 보십시오 (ἴδε)
 그가 세례를 주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갑니다 (οὗτος βαπτίζει καὶ πάντες ἔρχονται πρὸς αὐτόν.)
-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ωάννης καὶ εἶπεν·)
 단 한 사람도 받을 수 없느니라 (οὐ δύναται ἄνθρωπος λαμβάνειν οὐδὲ ἐν)
 만약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εἰ μὴ ἢ δεδομένον αὐτῷ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 (28절) 당신들이 스스로 나에게 증거하였습니다 (αὐτοὶ ὑμεῖς μοι μαρτυρεῖτε)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에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ὅτι εἶπον [ὅτι] οὐκ εἰμὶ ἐγὼ ὁ Χριστός, ἀλλ' ὅτι ἀπεσταλμένος εἰμὶ ἔμπροσθεν ἐκείνου.)
- (29절)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입니다 (ὁ ἔχων τὴν νύμφην νυμφίος ἐστίν·)
 신랑의 친구 (신랑의 사랑하는 자), 즉 서서 그로부터 기쁨으로 듣는 자는
 (ὁ δὲ φίλος τοῦ νυμφίου ὁ ἐστηκὼς καὶ ἀκούων αὐτοῦ χαρᾷ)
 신랑의 소리로 인해 기뻐 합니다 (χαίρει διὰ τὴν φωνὴν τοῦ νυμφίου.)
 따라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αὕτη οὖν ἡ χαρὰ ἢ ἐμὴ πεπλήρωται)
-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퇴하여야 합니다 (ἐκείνον δεῖ αὐξάνειν, ἐμὲ δὲ ἔλαττουσθαι.)
-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Ὁ ἄνωθεν ἐρχόμενος ἐπάνω πάντων ἐστίν·)
 땅으로부터 온 존재들은 땅에 속하였습니다 (ὁ ὢν ἐκ τῆς γῆς ἐκ τῆς γῆς ἐστίν)
 그리고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καὶ ἐκ τῆς γῆς λαλεῖ.)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ὁ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ἐρχόμενος [ἐπάνω πάντων ἐστίν]·)
- (32절) 그는 본 것과 들은 것을 증거합니다 (ὁ ἐώρακεν καὶ ἤκουσεν τοῦτο μαρτυρεῖ,)
 그리고 누구도 그의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καὶ τὴν μαρτυρίαν αὐτοῦ οὐδεὶς λαμβάνει)
-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심을 인쳤습니다
 (ὁ λαβὼν αὐτοῦ τὴν μαρτυρίαν ἐσφράγισεν ὅτι ὁ θεὸς ἀληθὴς ἐστίν.)
- (34절)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를 보내셨습니다
 (ὄν γὰρ ἀπέστειλεν ὁ θεὸς τὰ ῥήματα τοῦ θεοῦ λαλεῖν)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οὐ γὰρ ἐκ μέτρου δίδωσιν τὸ πνεῦμα.)
- (35절)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ὁ πατὴρ ἀγαπᾷ τὸν υἱόν)
 그리고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καὶ πάντα δέδωκεν ἐν τῇ χειρὶ αὐτοῦ.)
- (36절)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τὸν υἱὸν ἔχει ζωὴν αἰώνιον·)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ὁ δὲ ἀπειθῶν τῷ υἱῷ οὐκ ὄψεται ζωὴν,)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ἀλλ' ἡ ὀργὴ τοῦ θεοῦ μένει ἐπ' αὐτό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어어 갑니다. 31절을 읽으십시오. 31절은 성경의 특징적인 문학적 기법 중의 하나인 교차 배열 구조로 쓰였습니다. 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Ο ἄνωθεν ἐρχόμενος ἐπάνω πάντων ἐστίν·)

B: 땅으로부터 온 존재들은 (ὁ ὢν ἐκ τῆς γῆς)

C: 땅에 속하였습니다 (ἐκ τῆς γῆς ἐστίν)

B: 그리고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καὶ ἐκ τῆς γῆς λαλεῖ)

A: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ὁ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ἐρχόμενος [ἐπάνω πάντων ἐστίν]·)

위 문장구조에 따르면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 =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되고 ‘땅으로부터 온 존재들’ = ‘땅에 속한 자들’ =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자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말을 하며,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그분이 오시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이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뿐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그분,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땅에 속한 그가 온전히 알 수는 없는 일이지요. 세례 요한이 한 그 말은 겹손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은 니고데모가 한 말과 동일합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해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요 3:2 참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을 읽으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의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은 ‘위의 것’, ‘하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그대로 인간들에게 전하십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 3:12).

하늘의 일, 하늘의 것이 하나도 왜곡되거나 가감없이 땅에 그대로 증거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 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이 말하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친히 보고 들은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증거들은 진리인 것이지요. 하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는 커녕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중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고 그를 따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어 진리를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⁴⁵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⁴⁶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요 6:44-46).

예수님은 아버지가 이끄시는 자들을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요 수단이지 그것을 완벽하게 행하여 예수님처럼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율법에 의해 죽은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은 인간들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진리로 인도되는 일은 꽃마차를 타고 금의환향하는 멋진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처절한 자기 부인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진리로 인도되었습니까? 개인적인 간증을 간단하게 적어 보세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그의 증거를 받는 자... (금요일)

오늘의 말씀 (요 3:22~36)

22. 이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23.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24.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25.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6.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7.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 나의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29.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30.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31.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33.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34.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원문번역하기

- (22절) 그 일 이후에 (Μετὰ ταῦτα)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ἦλθεν ὁ Ἰησοῦς καὶ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εἰς τὴν Ἰουδαίαν γῆν)
그리고 거기서 그들과 머무르셨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καὶ ἐκεῖ διέτριβεν μετ' αὐτῶν καὶ ἐβάπτισεν.)
- (23절) 요한도 살렘에서 가까운 아이논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Ἦν δὲ καὶ ὁ Ἰωάννης βαπτίζων ἐν Αἰνῶν ἐγγὺς τοῦ Σαλείμ)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습니다 (ὅτι ὕδατα πολλὰ ἦν ἐκεῖ)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왔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καὶ παρεγίνοντο καὶ ἐβαπτίζοντο)
- (24절) 왜냐하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οὐπω γὰρ ἦν βεβλημένος εἰς τὴν φυλακὴν ὁ Ἰωάννης.)
- (25절)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습니다

- (Εγένετο οὖν ζήτησις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Ἰωάννου μετὰ Ἰουδαίου περὶ καθαρισμοῦ.)
- (26절) 그리고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καὶ ἦλθον πρὸς τὸν Ἰωάννην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랍비여 요단강 건너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ράββι, ὃς ἦν μετὰ σοῦ πέραν τοῦ Ἰορδάνου,)
 당신이 증거했던 그분이 (ὃ σὺ μαρτυροῦσθα·)
 보십시오 (ἴδε)
 그가 세례를 주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갑니다 (οὗτος βαπτίζει καὶ πάντες ἔρχονται πρὸς αὐτόν.)
-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ωάννης καὶ εἶπεν·)
 단 한 사람도 받을 수 없느니라 (οὐ δύναται ἄνθρωπος λαμβάνειν οὐδὲ ἐν)
 만약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ἐὰν μὴ ἢ δεδομένον αὐτῷ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 (28절) 당신들이 스스로 나에게 증거하였습니다 (αὐτοὶ ὑμεῖς μοι μαρτυρεῖτε)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에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ὅτι εἶπον [ὅτι] οὐκ εἰμὶ ἐγὼ ὁ Χριστός, ἀλλ' ὅτι ἀπεσταλμένος εἰμὶ ἔμπροσθεν ἐκείνου.)
- (29절)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입니다 (ὁ ἔχων τὴν νύμφην νυμφίος ἐστίν·)
 신랑의 친구 (신랑의 사랑하는 자), 즉 서서 그로부터 기쁨으로 듣는 자는
 (ὁ δὲ φίλος τοῦ νυμφίου ὁ ἐστηκὼς καὶ ἀκούων αὐτοῦ χαρᾷ)
 신랑의 소리로 인해 기뻐합니다 (χαίρει διὰ τὴν φωνὴν τοῦ νυμφίου.)
 따라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αὕτη οὖν ἡ χαρὰ ἢ ἐμὴ πεπλήρωται.)
-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퇴하여야 합니다 (ἐκείνον δεῖ αὐξάνειν, ἐμὲ δὲ ἐλαττοῦσθαι.)
-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Ὁ ἄνωθεν ἐρχόμενος ἐπάνω πάντων ἐστίν·)
 땅으로부터 온 존재들은 땅에 속하였습니다 (ὁ ὢν ἐκ τῆς γῆς ἐκ τῆς γῆς ἐστίν)
 그리고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καὶ ἐκ τῆς γῆς λαλεῖ.)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ὁ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ἐρχόμενος [ἐπάνω πάντων ἐστίν].)
- (32절) 그는 본 것과 들은 것을 증거합니다 (ὁ ἑώρακεν καὶ ἤκουσεν τοῦτο μαρτυρεῖ·)
 그리고 누구도 그의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καὶ τὴν μαρτυρίαν αὐτοῦ οὐδεὶς λαμβάνει.)
-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심을 인쳤습니다
 (ὁ λαβὼν αὐτοῦ τὴν μαρτυρίαν ἐσφράγισεν ὅτι ὁ θεὸς ἀληθὴς ἐστίν.)
- (34절)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를 보내셨습니다
 (ὄν γὰρ ἀπέστειλεν ὁ θεὸς τὰ ῥήματα τοῦ θεοῦ λαλεῖ·)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οὐ γὰρ ἐκ μέτρου δίδωσιν τὸ πνεῦμα.)
- (35절)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ὁ πατὴρ ἀγαπᾷ τὸν υἱόν)
 그리고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καὶ πάντα δέδωκεν ἐν τῇ χειρὶ αὐτοῦ.)
- (36절)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τὸν υἱὸν ἔχει ζωὴν αἰώνιον·)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ὁ δὲ ἀπειθῶν τῷ υἱῷ οὐκ ὄψεται ζωὴν·)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ἀλλ' ἡ ὀργὴ τοῦ θεοῦ μένει ἐπ' αὐτό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3 절을 읽으십시오. 33 절을 직역하면,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심을 인쳤습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되심’을 인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인쳤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증거를 받은 자는 단수 즉, 한 명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참되다고 인치신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된 교회로 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개별적 복수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부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으로 그는 3장 29 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입니다. 신랑의 친구(신랑의 사랑하는 자), 즉 서서 그로부터 기쁨으로 듣는 자는 신랑의 소리로 인해 기뻐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신랑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셨습니다. 이 신부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자 연합체인데 이 교회 구성원 개개인이 “하나님이 참되다”고 인치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인치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스프라기센(esphragisen)’이며 이 단어는 ‘자신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표시를 하다’, ‘안전하게 보존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동사 ‘스파라기조(spharagizo)’의 aorist 형입니다. 여기서 aorist 는 행위가 이미 종료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이미 인을 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소유권으로 확인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의해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일원으로 이미 인을 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래도 마음 한 구석 불안이 남아 있나요? 만약 불안이 남아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34 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쓰인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서의 성령이 아니라 말씀으로서의 성령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함께 세 번째 인격이시며 여러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영향력 중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요 6:63).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34 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를 보내셨다고 말하고 성령을 한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성령으로 쓰인 ‘프뉴마(πνεῦμα)’는 인격으로서의 성령이 아니라 말씀으로서의 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이해하면 결국 진리를 훼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종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뿐이니까요.

35-36 절을 읽으십시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은 그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요한복음 3장 16-21 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과 매우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반복적으로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든 세례 요한이 말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든 간에 아들과 그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있지요. 따라서 성경의 독자인 여러분들도 예수님 한분을 발견하고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간의 교훈을 찾으려고 애쓰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36 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영생을 소유한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예수님 (토요일)

오늘의 본문

1.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3.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5.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육시 쯤 되었더라
7.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원문해석하기

- (1절)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고 세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게 됨에 따라
(Ὡς οὖν ἔγνω ὁ Ἰησοῦς ὅτι ἤκουσαν οἱ Φαρισαῖοι ὅτι Ἰησοῦς πλείονας μαθητὰς ποιεῖ καὶ βαπτίζει ἢ Ἰωάννης)
- (2절)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세례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제자들이 하였습니다
(καίτοιγε Ἰησοῦς αὐτὸς οὐκ ἐβάπτισεν ἀλλ'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 (3절) 그가 유대땅을 버려 두시고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셨습니다
(ἀφῆκεν τὴν Ἰουδαίαν καὶ ἀπῆλθεν πάλιν εἰς τὴν Γαλιλαίαν.)
- (4절) 그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셔야만 했습니다 (Ἔδει δὲ αὐτὸν διέρχεσθαι διὰ τῆς Σαμαρείας.)
- (5절) 그래서 그가 수가라는 사마리아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ἔρχεται οὖν εἰς πόλιν τῆς Σαμαρείας λεγομένην Συχάρ)
[그 마을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πλησίον τοῦ χωρίου ὃ ἔδωκεν Ἰακώβ [τῷ] Ἰωσήφ τῷ υἱῷ αὐτοῦ.)
- (6절)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ἦν δὲ ἐκεῖ πηγή τοῦ Ἰακώβ.)
그런데 예수님이 여행길에 지치셔서 (ὁ οὖν Ἰησοῦς κεκοπιακῶς ἐκ τῆς ὁδοιπορίας)
그래서 그 우물 위에 앉으셨습니다 (ἐκαθέζετο οὕτως ἐπὶ τῇ πηγῇ.)
시간은 거의 여섯 (번쩍)시였습니다 (ὥρα ἦν ὡς ἕκτη.)
- (7절) 사마리아로부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ἔρχεται γυνὴ ἐκ τῆς Σαμαρείας ἀντλήσασα ὕδωρ.)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나에게 마실 것을 주십시오” (δός μοι πᾶν.)
- (8절)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οἱ γὰρ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ἀπεληλύθεισαν εἰς τὴν πόλιν ἵνα τροφὰς ἀγοράσουσι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두 이야기가 겹쳐 있습니다. 첫 이야기는 사실상 3장의 뒷부분에 이어진 내용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배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유대 땅에 계시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세례주는 일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진 사실을 알고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기로 하였고 그 노정 중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6시경(지금 시간으로 낮 12시경)이었습니다.

1절~3절을 읽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 같습니다.(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아닌 그분의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속한 공동체의 사역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이런 사실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게 된 사실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 종파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 종파는 크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귀족들인 사두개인들과 중산층에 기반을 둔 바리새인들 그리고 완전한 경건을 주장했던 에센파 등 세 종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자신의 세력을 확산하여 기존의 종파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성서 학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에센파에 속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어느 종파에 속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보내신 분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속한 종파나 그의 종교적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기존의 종파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인해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졌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선포한 메시지가 상당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종교지도자들(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⁸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⁹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¹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마 3:7-10).

이 메시지는 매우 유효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마 3:5-6)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을 읽으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에 의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으로 인해 당시 종파 간의 세력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

적이 이 세상에 또 다른 종교 세력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공생애 초기부터 자신이 유대교의 한 종파로 여겨지고 그로 인해 종파간 대립양상을 보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부랴부랴 유대 지방에서 철수하셔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3-4절을 읽으십시오. “그가 유대땅을 버려 두시고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셔야만 했습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버리다’라는 의미의 단어 ‘아피메이’(ἀφίημι)를 사용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유대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사역을 포기하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시지 않고 갈릴리로 사역지를 옮기셨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이 없으므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수많은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점령되어 종교적 논쟁이나 일삼는 곳을 ‘버리시고’ 실질적으로 자신을 계시할 수 있는 갈릴리로 떠나십니다.

4절의 헬라어 원어는 “Ἔδει δὲ αὐτὸν διέρχασθαι διὰ τῆς Σαμαρείας”입니다. 여기서 회색표시를 한 부분이 주동사인데 이 동사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필연적인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셨다는 것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지방과 유대지방을 여행할 때면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여리고 지방으로 내려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는 우회 코스를 택하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여정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셔야 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단 한 사람의 여인을 만난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던 이유가(목적)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기구한 운명을 살고 있던 어떤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여인을 찾아 여정 코스마저 변경하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읽으시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당신은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를 열심히 찾아내어 당신이 믿기로 결정했나요? 아니면 기대하지 않은 때에 당신의 삶 속으로 예수님이 불쑥 찾아 오셨나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난 계기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